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보류될 수도

■ 포용정책 최대 위기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남북관계와 대북 포용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태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든 6·15 공동선언 이후 우여곡절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유지해 온 대북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평화변영정책'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평화 구축을 위해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선전수단을 제거하고 서해 군당국 핫라인을 개통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작업을 벌여왔다. 경험 쪽에서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철도도로연결 등 3대 경제사업을 계속해왔다. 2000년부터 시작된 대북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려는 인도

유엔 안보리 제재따라 상황 달라질 듯 대북 수해 복구지원도 보류 불가피

적 측면에서 지속된 것이지만 평화변영정책의 기초에서 제3의 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미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조짐은 7월5일 미사일 발사 때부터 감지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전에 우리 측이 경고한 대로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주의적 성격의 사안에 칼을 들이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물론 주변국들과 조율을 통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대응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한 수해복구 지원물자의 수송작업의 지속 여부와 민간 주도 경험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2의 핵실험처럼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신중론의 논거가 되고 있다. 또 6·15선언 이후 6년간 쌓은 공동 탐을 한 순간에 허물 수 없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어 보인

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안팎의 정세를 감안해 추후 회복이 쉬운 조치부터 강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예컨대 개성이나 금강산 현지에 상주하는 우리측 인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핵실험에 따른 자국민 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명분 제시가 가능한 만큼 정책 기조를 한 번에 흔들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어떤 내용의 제재안을 내놓을 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대해선 정부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정상적인 민간 상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결의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번에 상거래까지 언급되는 '높은 수준'의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로서도 비켜갈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북한 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북한 군인들을 향해 박수를 치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TNT 0.4t~0.8t ... 日 원폭보다 소규모”

■ 북핵 위력은

북한이 9일 전격 감행한 핵실험은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먼저 탐지한 것으로 전해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측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폭발 규모를 TNT 0.4~0.8t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진계에 탐지된 규모 3.6을 역으로 계산한 낸 수치로, 핵실험 공간을 얼마나 밀폐했는지에 따라 최소 TNT 0.4t, 최고 0.8t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NT는 핵폭탄의 폭발 에너지 단위다. TNT 화약의 폭발 에너지량으로 환산한 수치로 1KT는 TNT 1t의 폭발력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몸담았던 이상호 경계대 정보보호학과 대우교수는 “핵실험의 폭발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며 “어떤 단위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 폭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핵실험을 통해 보다 정밀화된 기술을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정확성 보다는 어떤 형태든 터뜨리는 게 중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철저히 밀폐된 공간에서 중,소규모의 핵실험을 했더라도 핵실험장 주변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방사능 낙진은 아니더라도 방사능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실험 폭발 규모로 추산되는 TNT 0.4~0.8t은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핵실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와 22KT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폭발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폭발 규모는 핵실험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됐다’는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도 수십 KT에서 비교적 소형인 1KT 이하 핵탄두까지 다양한 핵실험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총비서 추대일·당 창건일 전후 체제 결속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맞춰 ‘판 키우기’

■ 왜 9일 택했나

북한의 핵실험이 지난 3일 외무성 명의의 핵실험 성명을 발표한 이후 대미 협상능력 제고 차원에서 단계별로 핵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서 급작스럽게 이뤄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9일을 핵실험 D-데일로 선택한 것은 대내외적 효과 극대화를 노린 ‘절묘한 택일’로 분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이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지 9돌이 되는 8일과 노동당 창건 61돌이 되는 10일 사이에 위치, 핵실험이라는 ‘이벤트’가 경축일 분위기에 맞춰 체제 과시와 주민 결속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날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8년 8월 31일 북한정권 창건 50주년(9월 9일)을 앞두고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축포’로 발사한 전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때를 같이해 단행함으로써 ‘판’을 키워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는 데다 북미 관계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 카드를 터뜨려 북미 양자 접촉의 시급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서는 기념일이 겹치고 외부적으로 한·일 정상 회담이 열리는 것을 겨냥해 9일을 택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실험 조기 실시는 부시 행정부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윤 국방 국방위 보고

윤광용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따른 향후 안보대책과 관련, “미국이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미국의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개하라”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고위층

“개인적으로 북 핵보유국으로 평가”

에서 그(핵우산 공약 재확인)와 같은 노력을 해 온 것들을 정리해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외교 장관이 관련국 외교 장관들과 전화회의를 갖고 한반도에 위협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며 “특히 제가 추석남(6일) 도널드 럽즈랜드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럽즈랜드 장관이 ‘북한이 핵

실험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전혀 허점이 없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밖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여부에 언급, “핵실험 성공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한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할 것 같다.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밤 8시부터 쏠쏠쏠 애들은가라!!

김범동 10월 11, 12일

편승엽 10월 16, 17일

민해경 10월 19, 20일

김수희 10월 26, 27일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산행인내

산행인내... (text continues in columns)